

문학콘텐츠의 기호학적 시적의미 연구

-문삼석의 동시(童詩)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miotics and Poetic Meaning of Literature Content

- at the Center of Moon Sam-seok's Children's Poetry -

성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Hyun-Ju Sung(ahchon@cku.ac.kr)

요약

본 연구는 문삼석의 동시(童詩)에 등장하는 매개항이 탈구축한 공간의 시적의미를 연구하여 동시(童詩) 교육 및 지도방법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호학적 공간이미지 읽기를 전제로 한다. 즉 <상·중·하> <좌·중·우>로 구축된 대극(對極)공간이 매개항인 '바람'의 개입에 의해 일탈(逸脫), 융합으로 탈구축화 되는 시적공간의 시적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텍스트는 문삼석의 연작시 중에서「바람과 다람쥐」,「바람과 난로」,「바람과 빈 병」,「바람과 염전」,「바람과 바위」5편이다.

연구결과 첫째, 바람은 물질의 유/무로 차별된 공간을 '상생의 공간'으로 탈구축화 하였다. 이러한 시적공간은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는 전체성 속에서 상생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상징화한다. 둘째, 바람은 소외·고통·고독의 간극을 없애버렸다. 즉, 바람이 탈구축한 시적공간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동질성을 전제로 한 '소통의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도출시켰다.

결론적으로 문삼석의 시적 언술(Poetic discourse)은 매개항을 등장시켜 시적공간의 이산성을 일탈과 융합으로 탈구축화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표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대극(對極)공간 | 바람 | 탈구축화 | 시적의미 |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study the poetic beauty of the space deconstructed by the medium appearing in Moon Sam-seok's children's poetry to help with simultaneous education and guiding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emiotics spatial image is read. In other words, we intend to derive the poetic beauty of the space in which the great pole space built by <up, middle, and right> is deconstructed by the intervention of <wind, left, middle and right> by the medium term <wind>. Among Moon Sam-seok's series of works, the research text is "The Wind and the Fire," "The Wind and the Empty Bottle," "The Wind and Salt," "The Wind and the Rock."

According to the study, the wind deconstructed a space that was differentiat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tter into a "coexistence space." These poetic spaces symbolize poetic beauty as ideal places of life that coexist in a distinction but not discrimination. Second, the wind has eliminated the gap between alienation, suffering and solitude. In other words, the wind deconstructed poetic space produced poetic beauty with the 'space of communication' based on homogeneity of the nature of existence.

In conclusion, Moon's poetic speech can be seen that he intended to express the discreteness of the poetic space as 'communication' and 'common life' by deconstructing it with deviation and convergence by introducing a medium.

■ keyword : | Great Polar Space | Wind | Deconstruction | Poetic Meaning |

I. 서론

“50인이 하나의 그림을 감상할 때 똑같은 의미로 그림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50개의 제각기 다른 그림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시적의미를 언어에 의해 환기되는 시각이미지의 그림에서만 추출하게 된다면 비평의 장래는 절망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각이미지로 시적의미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시적의미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1]

이 질문은 동일한 시를 읽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경험요소에 따라 시각이미지는 다양하게 전달됨을 전제로 한다. 작가가 시어로 선택한 사물(형태, 색 등)은 뚜렷한 구별과 윤곽 보다는 명암, 색채, 반점, 운동의 현상으로 표현되어 그려지는 회화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I. A. 리차즈는 서로 대립, 조화되기 어려운 충동(impulse)을 포괄(inclusion)하는 힘과 그 <태도>에 의해서만 그 시각이미지는 <시적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6] 여기에서 <태도>는 시각적인 이미지(묘사)를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을 의미한다. 객관적 관점 중 독자가 공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림의 요소에는 지형적(topography) 일체감이 있다. 그 누가 시를 읽어도 그 회화적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실체와 실체의 그 공간적 관계만은 불변적인 것으로 재현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미지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공간적인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공간 관계가 있다.

특히 공간은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분할되어 있고 그것은 <상·중·하> <좌·중·우>와 같이 이항 대립체계에 의해 구축된 대극(對極)공간으로도 나타나게 된다[1]. 그러므로 시적의미는 시의 회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실체와 실체가 공간적 대립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포착해야 한다. 특히 상/하, 내/외 이항대립의 공간 구축은 그 경계를 이루는 매개항의 개입에 의하여 코드의 일탈이나 변칙 또는 융합이 생겨남으로 시적이미지와 시적의미를 암시하게 된다[2]. 즉, 일차적인 명시적 의미와는 다른 공간적인 암시적 의미의 체계를 통해 하나의 세계상(상징적 의미)을 구축하여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지니게 된다[3].

그러므로 시의 시각이미지를 단순히 그려지는 회화적 이미지 해석에서 벗어나 기호학적 공간이미지 읽기가 필요하다. 독자는 기호학적으로 형성된 시적공간에서 어떤 관념, 정서 그리고 암시적인 의미의 지향성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삼석의 동시는 사물의 본질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관계성 속에 숨은 사랑의 세계를 포착, 동심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동시를 주로 썼다[4]. 기존의 연구 자료를 요약해보면, 석사학위 논문 1편, 국내학회지 작품론 19편, 단평(서평·월평·계평) 42편이 있다[5]. 이연숙(2017)은 문삼석 동시의 간결한 구조·연작시와 시화·다양한 표현기법의 형태면과, 동물·자연·사물에서 동심을 찾고자 하는 작가관의 특성으로 연구하였다[6]. 이 외 단평에서는 작가에 대한 전기적·회화적·감상적 관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된 자료는 없다.

연구대상은 ‘바람’이 중심이 된 연작시로서, 「바람과 다람쥐」, 「바람과 난로」, 「바람과 빈 병」, 「바람과 연전」, 「바람과 바위」 5편을 선정하였다. 특히 작가는 「책머리에」에서 그는 “나는 요 몇 년 동안 몰래 바람의 뒤를 따라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바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언급하고 있다[7]. 작가가 몇 년 동안 ‘바람’을 연구텍스트로 삼아 연작시를 창작한 점을 볼 때, 작가는 ‘바람’에서 ‘동심’의 원형을 찾아 시적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바람’이 시적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어떤 시적의미를 추구하는지 ‘기호학적 의미’로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학콘텐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동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시 교육 및 지도방법론에 새로운 방향타가 되리라 생각한다.

II. 바람의 파벽공간, 탈구축화

노르베르그 - 슈츠(Norberg-Schulz)는 <실존적 공간의 가장 단순화한 모델은 하나의 수평면에 수직축을 꽂아 세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수직축은 인간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력의 방

향에 의해 본질적·객관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수직공간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형적 공간요소의 기본이 된다. 수직공간은 우주론적 차원·사회공간적 차원(사회·도시·마을)·주거공간적 차원(신체공동의 개체공간) 등으로 의미단위의 차원성으로 기술될 수 있다[1]. 그렇게 해야만 텍스트의 공간적 의미작용은 보다 그 변별적인 유효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수직공간의 상/하 이항대립적 공간체계는 우열의 층위에 의해서 각기 가치가 부여되거나 인간의 감정·행위·가치관 등으로 표출된다. 반면, 수평공간은 열림/닫힘, 비어 있는 것/차 있는 것, 감각 공간 등 단순한 이항 대립 체계 등에 의해 분리되거나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체계를 나타내는 표현공간이 된다.

그러나 수직공간의 상/하, 수평공간 내/외의 이항대립의 공간 구축은 그 경계를 이루는 매개항의 개입에 의하여 코드의 일탈이나 변칙 또는 융합이 생겨나는 다양하고 동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바람은 공간의 탈매개 기호로써 안개, 눈, 밤과 함께 해체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기상현상의 하나이다. 즉, 바람은 수직/수평 공간에서도 다 같이 경계 침범을 하고 하방 체계에 속해 있는 그 무엇도 바람에 의해 해체되거나 결합되어 탈구축화 된다. 본고에서의 '탈구축화'는 수직/수평공간의 대립체계를 근본적으로 전도시켜 버리거나 또는 그 대립의 간극(brusure)을 없애버리고 아무런 차이도 생겨나지 않았던 하나의 전체성(non differentiated totality)속에서 공존하는 원초적 상황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는 종교학자 엘리아드(Mircea Eliade)가 말한 <제3항>, 즉 이항대립의 요소를 통합하여 그것에 균형을 부여하는 <통합 superior synthesis>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호학적 의미에서 '바람'은 탈구축의 제3항이 된다[1].

1. 차별의 간극, 상생

밤나무 숲에서 다람쥐가
포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아, 배고파.”

그러나 알밤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잠깐만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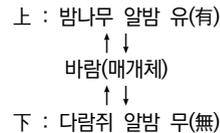
바람이 달려와서
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맛있는 알밤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람과 다람쥐」전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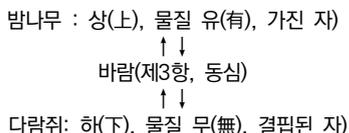
「바람과 다람쥐」의 시각이미지는 밤나무가 있는 숲이다. 밤이 달린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는 다람쥐가 있다. 배고픈 다람쥐가 밤나무 밑으로 왔지만 알밤을 구할 수가 없다. 밤나무와 다람쥐는 상/하 관계의 이항대립적 공간속에 있다. 즉, 밤나무와 다람쥐는 上(알밤이 있다)/下(알밤이 없다)의 알밤 有/無 변별성으로 상/하 이항대립이 형성된다.

이때 바람이 “잠깐만 기다려.” 라며 매개체로 등장한다. 바람은 상/하 경계선을 해체하기 위한 탈구축의 제3항이 된다. 바람은 물질의 유/무 간극을 해체하기 위해 밤나무를 흔든다. → 맛있는 알밤이 떨어진다. → 배고픈 다람쥐는 허기를 채운다. 즉, 바람에 의해 알밤이 땅 위로 떨어짐으로써 물질의 유/무, 상/하 이항대립공간이 해체된다.



바람이 다람쥐의 허기를 채우고자 상/하 경계선을 해체시키는 상징화된 시적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각 이미지에서 밤나무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다람쥐는 낮은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밤나무는 알밤이라는 물질을 가진 자, 다람쥐는 가지지 못한 자이다. 물질이 있고 없음의 변별성으로 인해 상/하의 수직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형태이다. 바람이 밤나무를 흔들어 밤을 떨어뜨리게 했다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닌 의도가 있는 작위적 형태이다. 가진 자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이다. 그러나 바람의 행위는 순수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람쥐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더구나 밤나무의 행위는 밤나무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큰 이익을 밤나무에게 주게 된다. 생

태학적으로 다람쥐는 먹고 남은 알밤을 땅 속에 숨겨놓기 때문에 오히려 밤나무의 번식을 도와주게 된다. 따라서 바람은 제3항의 매개체로서 상/하 이항대립의 구축을 해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무에 의한 차별의 간극도 해체시켜 버림으로써 밤나무와 다람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공간으로 탈구축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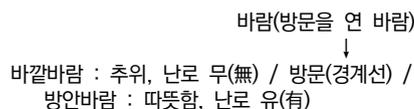


‘바람’의 시적의미는 ‘동심’이다. 어른들은 이해타산적인 사고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는 않는다. 반면 어린이는 대상이 누구든지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므로 다람쥐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다. 동심(童心)이기 때문에 가능한 바람의 행위이다. 배고파 하는 다람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밤나무를 흔들어 알밤을 떨어뜨림으로써 물질의 유/무에 의해 이루어진 차별성의 간극을 없애버리고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탈구축화함으로써 ‘상생의 공간’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시에서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은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통해 내 것, 네 것으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은 하되 차별 없이 상생하고자 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찬바람에게 자리를 내주자.”
 난롯가에 있던 바람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밖에서 떨고 있던 찬바람들이
우우 물려들었습니다.
 “고마워. 아, 따뜻해.”
 난로도 빨갛게
웃었습니다.
 -「바람과 난로」전문 -

「바람과 난로」의 시각이미지는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내/외의 공간 분리는 방문으로부터 시작되며, 방문은 방과 바깥이라는 공간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소통의 수단이 된다. 더구나 내/외의 경계 구분에서 겨울은 ‘내’ 공간을 강화하는 의미 작용으로서 ‘외’ 공간을 형성하는 기호 형식이 된다. 즉, 밖이 추울수록 안은 더 따뜻해지므로 ‘차가운 것/ 따뜻한 것’의 온도 감각은 차가운 것이 바깥, 따뜻한 것이 내부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안’이 ‘바깥’과 구별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한행의 변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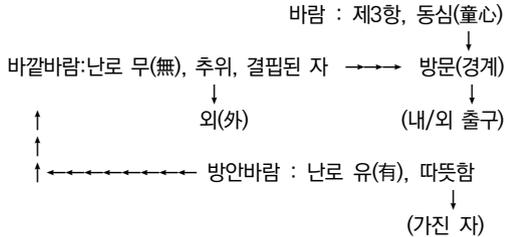


그런데 바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밖에서 떨고 있는 찬바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에서 ‘방문을 연 바람’, “찬바람에게 자리를 내주자”라고 말하는 ‘방안에 있는 바람’이다. 명시적 의미로는 같은 바람이지만 시각적 공간에서는 방문의 경계선과 난로의 유/무에 의해서 암시적 의미가 내포된 바람의 유형이다. 즉, 난로가 없는 ‘바깥바람’, 난로가 있는 ‘방안바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찰자바람’이다. 여기에서 ‘방문’은 하나의 경계선이 된다. ‘바깥바람’은 물질적으로 결핍된 자, ‘방안바람’은 물질을 가진 자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핍된 자/가진 자의 변별성은 난로의 유/무에 의해서이며 이로 인해 바깥바람/방안바람은 물질의 유/무에 의해 내/외의 이항대립 공간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찰자바람’은 제3항의 바람으로서 그 어디에 속해있지 않다.

이 때 제3항의 바람은 방문을 살짝 열어준다. 그러자 ‘방안바람’과 ‘바깥바람’이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내/외 공간의 해체 뿐 만 아니라 물질의 유/무로 인한 차별성까지 해체시켜버린다.

방문을 연 제3항의 바람은 동심으로 상징화된다. 만약 어른의 시각이라면 난방비 아끼기 위해서 방문을 열 어놓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방문을 꼭 닫는다. 더구나 어른들은 겨울의 바깥은 당연히 춥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나’ 아닌 ‘그 누구’의 추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동심은 그런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행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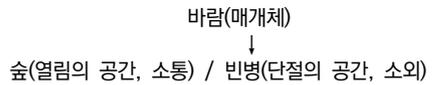
물질의 유/무 경계선의 탈구축화는 공감과 배려에서 시작한다. 공감과 배려는 동질성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동심은 사람/동물/식물/무생물 등 구분은 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는다. 모든 만물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우주론적 사고를 동심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떨고 있는 찬바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게 됨으로써 차별의 간극을 해체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방문을 연 바람(동심)에 의해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와 가진 자의 삶을 너와 나의 차별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빨강게 웃는 난로’로 시적의미를 형상화하였다.

2. 소외의 간극,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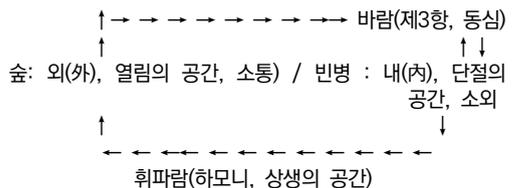
바람이
숲 속에 버려진 빈 병을 보았습니다.
“쓸쓸할 거야.”
바람은 함께 놀아주려고
빈 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오, 보오.”
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바람과 빈 병」전문 -

「바람과 빈 병」에서 시각이미지는 숲속에 빈 병 하나가 버려져 있다. 빈병이 있어야 할 곳은 숲 속이 아니다. 빈병이 있어야 할 곳은 고물상이거나 빈병이 활용될 수 있는 그 무엇, 도구로서 있을 때는 존재가치가 있다. 따라서 숲 속에 버려진 빈병은 숲속의 이질적인 존재이다.

숲은 나무와 풀, 그리고 새들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열림의 공간이다. 반면 숲 속에 버려진 빈병은 숲과 소통할 수 없는 단절된 공간에 있다. 숲은 식물과 동물들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이나 버려진 빈병은 숲과 소통할 수 없는 소외된 존재이다. 따라서 숲/빈병은 수평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열림/단절의 이항 대립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빈 병은 쓸모가 없는 물건, 즉 필요한 내용물을 취한 뒤 버려진 폐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람은 빈 병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바람은 빈 병의 심리를 동일한 선상에서 공감함으로써 “쓸쓸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함께 놀아주려고” 바람이 빈 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내/외 공간을 해체시키는 계기가 된다. 빈병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친구가 되어 준 바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된다. “보오, 보오. 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처럼 바람과 빈 병은 서로 소통하게 됨으로써 숲의 노랫소리를 만들게 된다. 즉, 바람에 의해 숲과 단절된 빈 병이 휘파람으로 숲과 소통하게 된다.



제3항의 바람은 동심으로 상징화된다. 바람은 숲 속에 버려진 빈병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할 뿐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빈 병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사회적 기준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함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즉, 선입견이 배제된,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으로 빈 병 그 자체(존재)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이다. 따라서 바람은 차별하지 않고 동질성을 찾아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시선으로 “맑은 소리로 / 휘파람을 불었습니다.”의 소통의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즉, 내/외로 단절된 이항 대립적인 공간을 바람이 탈구축화하여 소통하게 함으로써 동질성을 갖게 되고 합일적인 휘파람으로 시적의미를 형상화하였다.

바닷물이 염전에서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덥니? 날 따라와.”

바람은 몰래몰래
바닷물을 데려갔습니다.

염전에는
소금만

하얗게 하얗게
남았습니다.

-「바람과 염전」전문 -

「바람과 염전」의 시각이미지는 한여름 땀방울이 짹짹 내리쬐고 있는 염전이다. 염전 안에는 바닷물이 갇혀 있는데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더위만 있을 뿐이다. 반면 염전 밖은 마음껏 흐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염전의 형태가 변별성이 되어 바닷물의 내/외 이항 대립 체계가 형성된다. 즉, 더위로 고통 받고 있는 갇힌 공간(염전 안)/고통이 없는 열린 공간(염전 밖)으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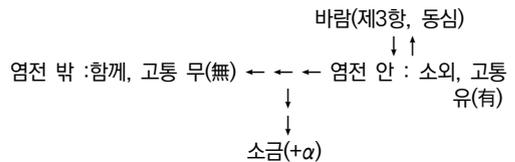
바람(매개체)

염전 밖 : 바닷물 고통 무(無) / 염전 안 : 바닷물 고통 유(有)

위 시에서 바람의 시선은 일반적인 시선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염전은 소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생존의 현장이다. 염전 안은 뜨거워야 빨리 소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염전을 구성하고 있는 바닷물의 더위

보다는 물질의 생산성 향상을 더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은 염전 안에서 바닷물이 겪고 있는 더위를 먼저 생각한다. 바람은 염전 안에 갇혀 있는 바닷물을 사랑의 시선으로 공감함으로써 안쓰러워한다. 그래서 바람은 “얼마나 덥니? 날 따라와.”처럼 염전 안 바닷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분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염전 안으로 들어간다. 바람은 염전의 내/외 공간을 넘나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몰래 몰래 바닷물을 데려갔습니다.” 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바람이 염전 안 바닷물을 도와주는 행동은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고통을 받고 있는 염전 안 바닷물을 도와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뿐이다. 그 무엇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 흥미 위주의 관심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염전 안 바닷물을 보았기 때문에 동질성을 느낀 것이다. 이러한 바람의 행위로 염전 안 더위와 염전 밖 시원함의 내/외 경계선이 해체되어 버린다. 더구나 바람은 염전 안 바닷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와주고자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소금’이라는 $+a$ 를 갖게 된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바람의 마음이 “하얗게 하얗게”의 소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바람의 목적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아니었다. 하지만 남의 고통을 해결해 줌으로써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a$ 에 해당하는 소금을 얻게 된 것이다. 나의 힘듦을 네가 함께 해 줄 때, 너의 힘듦을 내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보람, 성취감, 결과물을 얻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의 차별하지 않는 시선이 타인의 고통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소금(+a)이라는 물질까지 가질 수 있음을 시적의미로 형상화하였다.

“아, 쓸쓸해.”

까맣게 탄 바위가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은 틈틈이
흙먼지를 날라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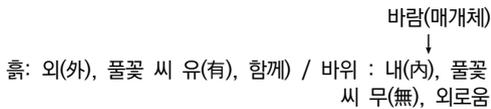
꽃씨도 몇 알
날라왔습니다.

어느 날 바위틈에선
작은 풀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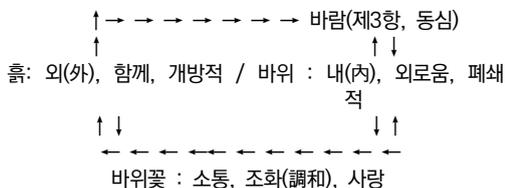
바위는 이제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바위」전문 -

「바람과 바위」의 시각이미지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어느 들판의 모습이다.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바위가 “아, 쓸쓸해.”라며 외로움을 표현한다. “까맣게 탄 바위”는 오랜 시간동안 홀로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바위는 노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無)의 상태이다. 바위는 나무와 꽃, 풀을 피울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풀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풀꽃 씨가 있는 흙(外)/풀꽃 씨가 없는 바위(內)로 이항 대립 체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바람은 바위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바위가 그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흙을 나르고 풀꽃 씨를 옮겨온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바위에게 다정한 이웃을 만들어 줌으로써 외롭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다. 바람이 생각했을 때 바위에 꽃이 피면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바람의 행위는 풀꽃 씨 유/무에 의해 변별성을 가진 이항 대립 체계를 해체시켜버린다.



문학적인 상징의미에서 바위는 견고함과 무게, 생김

새, 흔들림이 없는 무거움, 강인함, 신중함 등을 연상시키므로 감정의 기복이나 변화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비유되곤 한다[8]. 다시 말하면 바위는 어른들의 고정관념, 폐쇄적인 사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까맣게 탄 바위’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확고한 고정관념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반면 제3항인 바람은 고정화된 관념이 없다. 따라서 바위에서 꽃을 피우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단지 외로워하는 바위를 도와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한다. 바람의 개방적 사고는 바위에 꽃을 피웠고 바위의 폐쇄적인 사고까지 전환시켰다. 바람의 행위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너와 나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음을 바람과 시적 결정체인 ‘바위꽃’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공간기호학적 관점에서 동시(童詩)의 시각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시적의미를 연구하여 동시 교육 및 지도방법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시어의 지시작용(referential function)이 아니라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공간기호론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차이이고, 그 차이는 이항대립적 관계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공간의 이산성을 분석해보면 상/하, 내/외의 이중 본질로 대립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적 메타언어의 본질적 요소는 바로 ‘경계’이다. 이러한 경계는 제3항으로 인해 가진 자/가지지 못한 자, 소외/함께, 등과 같은 양극화된 관념, 슬픔이나 기쁨 같은 대립된 감정, 그리고 긍정/부정과 같은 가치의 체계와 연결된다.

연구 결과, 문삼색 동시에 등장하는 바람은 상/하, 내/외 이항대립의 요소를 ‘통합(superior synthesis)’으로 탈구축화함으로써 그것에 균형을 부여하고 단순한 시각이미지가 아니라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시적의미를 ‘이상의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첫째, 「바람과 다람쥐」, 「바람과 난로」에서 바람은 물질의 유/무로 차별된 공간을 ‘상생의 공간’으로 탈구축

화 하였다. 이러한 시적공간은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는 전체성 속에서 공존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상징화하였다. 「바람과 다람쥐」는 알밤의 유/무에 의해 이항대립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물질을 가진 자/결핍된 자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하의 이원구조에 동적인 변환 체계를 일으킨 것이 탈구축의 제3항 기능을 가진 바람이다. 바람은 가진 자/못 가진 자의 물질가치 체계를 해체함으로써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바람과 난로」는 난로의 유/무에 의해 내/외 경계선이 형성되면서 이항대립 체계가 형성된다. 물질의 유/무 경계선의 탈구축화는 공감과 배려에서 시작한다. 제3항인 바람이 방문을 열게 됨으로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와 가진 자의 삶을 탈구축화 하였다. 너와 나의 차별이 없는 인간으로서 동질성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을 "난로가 빨갛게 웃었습니다."로 표현하였다.

둘째, 「바람과 빈 병」, 「바람과 염전」, 「바람과 바위」에서 바람은 소외·고통·외로움의 간극을 없애버렸다. 즉, 바람이 탈구축한 시적공간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동질성을 전제로 한 '소통의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도출시켰다. 「바람과 빈 병」은 소통(숯)/소외(빈병)의 내/외 이항대립적인 공간을 바람이 공감과 배려로 해체시켜 동질성을 찾는 휘파람으로 '소통의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바람과 염전」은 염전 안 바닷물(고통 有)/염전 바깥 바닷물(고통 無)의 내/외 이항대립적인 공간이다. 제3항인 바람이 염전의 공간을 탈구축화하여 염전 안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α'의 소급으로 '소통의 공간'을 보여주었다. 「바람과 바위」는 흙(풀꽃 씨 有, 함께)/바위(풀꽃 씨 無, 외로움)의 내/외 이항대립적인 공간이다. 제3항인 바람이 개방적인 시선으로 공간을 탈구축화하여 바위의 외로움을 해결하였다. 또한 '바위꽃'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떠나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통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문삼석 동시에 나타나는 '바람'은 탈구축화를 시도하는 제3항으로서 수직/수평 공간의 이산적 단위들이 결합하여 그것들의 기호작용에 의해 시각이미지로 기술할 수 없는 시적의미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바람'은 공간구조를 탈구축화함으로써 '현실의 공간'과

'이상의 공간'을 특수한 의미 관계로 시적 구조화하여 작가의 시적의미를 보여주는 '동심'으로 상징화 되었다.

결론적으로 문삼석의 시적 연술(Poetic discourse)은 '바람'이라는 매개항을 등장시켜 시적공간의 이산성을 일탈과 융합으로 탈구축화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시적의미를 표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문삼석의 동시(童詩)를 기호학적 관점으로 연구한 첫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자료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을 맺는다.

참고 문헌

- [1]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 [2]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0.
- [3] 김춘수, *드라마분석방법론*, 집문당, 2004.
- [4]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5] 문삼석, *동심의 숲을 벗보다*, 아동문학평론, 2014.
- [6] 이연숙, *문삼석 동시의 특성과 동심의 양상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2017.
- [7] 문삼석, *바람과 빈 병*, 아동문예, 1992.
- [8]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6.

저자 소개

성현주(Hyun-Ju Sung)

정희원



- 2007년 2월 :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문학석사/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

〈관심분야〉 : 어린이교육콘텐츠, 스토리텔링, 교육연구